



- 연중 제30주일 - 2019년 10월 27일 • 다해

천주교 의정부교구(<http://ucatholic.or.kr>) • 발행인 이기현 • 편집 홍보국 • 제823호 • 주소 11674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의정부동) 의정부교구청
• 전화 031-850-1400(대표), 850-1433~5(홍보국) • 팩스 850-1575 • 이메일 jubo@uca.or.kr

마리아 수도회



설립 2014년 9월 13일 전화 사무실 031-926-3090 주소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호수로 76-13

제1독서 집회 35, 15ㄴ-17, 20-22ㄴ

화답송 시편 34(33), 2-3, 17-18, 19와 23(◎ 7ㄱ)

◎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어 주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주님의 얼굴은 악행을 일삼는 자들에게 맞서, 그들의 기억을 세상에서 지우려 하시네. 의인들이 울부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해 주셨네. ◎
- 주님은 마음이 부서진 이를 가까이하시고, 영혼이 짊어진 이를 구원해 주신다. 주님이 당신 종들

의 목숨 건져 주시니, 그분께 피신하는 이 모두 젖값을 벗으리라. ◎

제2독서 2티모 4, 6-8, 16-18

복음 환호송 2코린 5, 19 참조

◎ **알렐루야.**

- 하느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당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기셨네. ◎

복음 루카 18, 9-14

영성체송 시편 20(19), 6 참조

당신의 구원에 우리가 환호하며, 하느님 이름으로 깃발을 높이리이다.

“오, 하느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루카 18,13)



김민우 클레멘스 신부
주엽동 부주임

신학생 시절 힘들었던 일을 하나 뽑으라면 고해성사를 떠올리게 됩니다. 신학생들은 최소 한 달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보고, 성사표를 원감 신부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학교의 삶이란 게 매번 같은 일과의 반복인지라, 고해소 앞에 가면 막막함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다지 죄를 지은 것 같지 않은데 무슨 죄를 고백해야 하나, 이 정도면 잘 산 것 같은데 무슨 말을 해야 하나 한참을 고민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돌아보면 참 우습고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바리사이는 참 잘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에게 맞게 하느님께 열심히 기도했고, 불의를 저지르지도 않았으며, 단식과 십일조 납부 같은 의무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이만하면 훌륭한 신앙인 같은데, 예수님께서서는 그런 모습을 닮지 말라고 충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바리사이의 영적 교만을 닮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영적 교만이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해 봐도 죄지은 게 없는데? 이 정도면 하느님 보시기에 잘 산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며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은 하느님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데 그치지 않고, 자기 의로움을 바탕으로 남을 판단하고 비난합니다. “나는 이렇게 잘살고 있는데, 너는 왜 그것밖에 못 살아? 그래서 하느님한테 구원받을 수 있겠어?” 그렇게 영적 교만에 빠진 사람은 더이상 자신의 잘못이나 부족함을 살피지 않고 오로지 남의 죄를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는 사이 자신이 점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 지고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말입니다.

원죄에 물든 우리가 누구를 비난하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이의 구원을 위해 당신을 바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며 누가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바리사이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영적인 교만함을 경계하고 당신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이 될 것을 주문하십니다.

자신의 의로움과 잘남을 자랑하기란 쉽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청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세리가 칭찬을 받은 것은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알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세리의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 안의 영적 교만을 떨쳐내고 주님 앞에 겸손한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❸



나의 친구가 되어 주어 감사합니다.

김수연 카타리나 / 화정동 성당

저는 교적은 능곡이지만, 현재는 화정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왜 본인 교적에서 활동하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던지신다면 지금부터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남도 영암 성당에서 세례를 받고, 직장생활을 하면서 부모님 곁을 떠나 능곡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이곳 지리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자리를 잡고 여동생이 ‘언니 나~성당 가려고 하는데 어디로 가야할까?’ 지도를 검색해보던 중 가까운곳이 화정동 성당이라서 ‘여기 가면 되겠네~’하고 동생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게 동생이 성당을 다니게 되었고, 그 후 저도 긴 냉담을 끊고 함께 성당을 나가게 되었으며 그 후 화정동에서 청년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다보니 교적과 다른곳에서 청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릴적 복사를 한적 없던 저는 여자 청년복사를 보고 내 일생에 지금 아니면 복사할 기회가 없겠구나 생각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미사 때 마다 가장 가까워서 신부님을 도와 미사를 보는 것이 너무나 행복하였습니다.

복사를 하면서 부활 대축일미사에 향복사 했던 것이 가장 잊지 못할 추억입니다. 복사를 하면서 청년미사 차리기도 함께 하고 있는데, 내가 준비한 예물과 내가 차린 제의로 미사 집전하는 신부님을 뵈 때면 뿌듯함도 느낍니다. 그렇게 벌써 5년째 봉사중입니다. 아직도 미사 봉사 전에는 떨려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며 기도를 수십 번도 넘게 드려서인지 감사하게도 큰 실수 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복사 봉사하

는 친구들과 미사 후 다음날 출근이라 집에 가서 쉬어도 되건만, 저희는 월요일은 원래 힘드니깐 주일 저녁을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청년활동 시절을 돌아보면, 8월 여름캠프를 준비하기 위해 3월부터 장소 섭외하고 프로그램 준비했던 시간, 교구 단체장 연수를 준비하기 위하여 교구 청년들과 퇴근 후 혹은 주일에 만나서 준비했던 시간, 그러면서 지구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가보지 못했을 타 본당에서 미사도 드리러 갔었고, 그곳에서 활동하였던 청년들도 만났고, 최근 본당 청년들과 함께 하였던 DMZ 평화의 길 봉사까지.. 참 많은 활동을 하였던 것 같습니다. 특히 DMZ 평화의 길 봉사를 하지 않았더라면 현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으로써 무관심하게 남북관계를 바라봤을 것이며, 통일에 대한 생각을 진지하게 못해봤을텐데 봉사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간절하게 기도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것들이 청년 활동을 하지 않았더라면 느껴보지 못했을 순간이고 그때 내가 잠시 생각을 달리하였다면 겪어보지 못했던 일들이라 아찔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토록 타지에서 생활하였던 저에게 청년활동은 큰 힘이 되었습니다. 30살을 바라보는 나이에 청년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손을 내밀어 준 신부님과 함께 하여준 본당 친구들에게 감사합니다. 일생에 청년이라는 이 시기는 한 번 뿐이고 이 귀중한 시간을 아름답게 쓸 수 있게 해주신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친구가 되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과

한국천주교주교회의(의장 김희중 대주교)는 2019년 10월 14일(월)부터 17일(목)까지 서울 중곡동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추계 정기총회를 갖고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를 위해 다음의 사항들에 각 교구가 자발적으로 동참하기로 하였다.

1)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인 2020년을 맞이하여, 2019년 12월 1일 대림 시기부터 2020년 11월 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를 전 교구만들로 확대하고, 이를 『매일미사』(매달)와 교구 주보(매주)에 안내한다. 이후에도 이 기도운동을 계속 권고하기로 하였다.

2) 2020년 6월 25일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의 날에 교구별로 각 교구가 정한 장소에서 오전 10시 30분에 미사를 동시에 봉헌한다.

2.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2019년 9월 30일에 자의 교서 *Aperuit Illis*(그들의 마음을 여시어)를 발표하시며 연중 제3주일을 ‘Sunday of the Word of God’로 제정하심에 따라, 주일의 우리말 명칭을 ‘하느님의 말씀 주일’로 정하였다. 교황님께서는 자의 교서에서 하느님 백성이 이 ‘하느님의 말씀 주일’을 거행하면서, 하느님 말씀을 배우고 묵상하며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증언하는 데 힘쓰도록 하셨다. 또한, 사목자들은 신자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읽고 이해하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 주어야 하며, 모든 이가 성경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시고, 특히 “거의 성사나 다름없는 특성”을 지닌 강론 준비에 충분한 시간을 갖도록 당부하셨다.

3.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5월 29일)과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7월 5일)의 전례일 등급 조정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로마 전례력의 정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되 각 교구장의 재량에 따라 해당 전례일을 거행하기로 하였다.

1)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7월 5일) 신심 미사는 주교회의 차원에서 “신심(기원) 1등급”(매우 중대한 필요 또는 사목적 선의 때문에 교구 직권자의 명령이나 허락을 받아서 드리는 기원 미사와 신심 미사)으로 정하여 성대하게 기념하며, 연중 시기 주일과 겹치더라도 이 기념 거행을 할 수 있다.

2) ‘복자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들’(5월 29일) 기념일은 우리나라의 순교 복자들을 기리는 의미로 성대하게 기념한다. 그러나 2019년 5월 24일 자로 사도좌 추인을 받은 ‘성 바오로 6세 교황 기념일(5월 29일)’과 같은 선택 기념일이므로, 각 교구장의 재량에 따라 기념일을 선택하여 전례를 거행할 수 있다. 따라서 『매일미사』에는 두 선택 기념일의 전례문을 모두 수록하도록 한다. ☺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http://www.cbck.or.kr> > 보도자료

미국에서 유래한 종교들 2

예수그리스도후기성도교회(몰몬교)

미국인 조셉 스미스 주니어가 기도 중에 천사의 안내로 발견했다는 [몰몬경]을 출판(1830년)하며 시작된 종교이다. 이들은 '몰몬경'이 기원전에 이미 아메리카 대륙으로 이전한 히브리인들의 역사(기원전 600년 - 기원후 421년)가 기록된 책으로, 그들이 다른 민족과 겪은 역사와 몰락 과정,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아메리카 발현과 메시지 등을 담고 있다고 주장한다. '몰몬경' 외에도 '값진 진주', '교리와 성약'을 '성경'과 함께 종교적 경전으로 받아들인다. 설립 초기부터 신정정치체제, 일부 다처제(20세기 초에 없어졌다) 등의 실천적 측면 때문에 미국인들로부터 강한 비판과 직접적 공격(무력충돌)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여러 도시를 전전하다, 현재의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시에 정착하게 되었고, 그곳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한국에는 1956년에 공식적으로 진출했다.

'인간 영이 출생 이전부터 영속적으로 존재한다', '아담의 원죄가 전해지지 않는다', '새로운 시온이 아메리카 대륙에 세워진다' '초대교회의 조직과 체계를 회복한 것이 자신들이다' '현재도 살아있는 선지자에 의해 계시가 주어진다'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정생활의 중시', '윤리적 순결주의' '죽은 이를 위한 대리 침례 의식' '매월 첫 주의 금식' '해외 선교사 파견' 등의 실천을 강조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무료 영어 교육과 미국 유학 주선 등의 방법으로 선교활동을 하고 있다.

그리스도교의 경전은 구약과 신약을 담고 있는 [성경]이 유일하다. 다른 모든 문헌은 성경의 가르침과 부합해야 교회 안에서 인정을 받는다. 역사적 진위가 확인되지 않는(거의 창작으로 보이는) 몰몬경 같은 다른 책자를 경

전의 위치에 올려놓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그리스도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모든 계시, 곧 하나님의 신비에 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완성되었다. 새로운 계시란 없다. 지금 교회가 내놓는 가르침은 단지 계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일 뿐이다.

로사리오의 성모회(베이사이드파)

주일 미사가 끝나고 성당을 나설 때, 스카폴라와 함께 성모님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유인물을 나눠주는 사람들을 보았을 것이다. 이들은 1970년부터 1994년까지 미국 뉴욕의 베이사이드(Bayside)라는 곳에서 베로니카 루에켄이라는 여성이 받았다는 성모님과 예수님, 성인들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들이다. '성 미카엘회', '로사리오의 성모회' 등으로 자칭하지만, '베이사이드파'라고 부른다. 이들은 '묵주기도를 포함한 기도의 생활화, 매일의 성경 독서, 순교신심, 결혼의 중요성,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생명 존중' 등 전통적인 교회의 가르침도 말하지만, [무릎을 꿇고 입으로만 하는 영성체, 손으로 하는 영성체 금지, 부적처럼 스카폴라나 분도패 등의 착용, 다가오는 환난에 대비한 통조림, 담요, 물의 준비, 1964년 이전의 성경 소유, 트리엔트 공의회(1545-1563) 전례의 회복] 등의 주장과 [666, 바코드와 생체칩, 십자군 기도, 우주선 UFO] 등과 관련된 황당한 말까지 한다. 이러한 현상은 '현대사회의 변화와 발전, 교회의 학문 연구의 결과물, 현대 교회를 이루게 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의 결정' 등을 수용하지 못한 데다가 종말론적 착각이 결합한 데서 온 것이다. 전통적인 것을 말하는 듯하지만, 결국 이들도 '종말론자'로서 교회의 가르침과 다른 것을 말하는 집단이다. 진실과 거짓을 섞어 말하는 이들은 사기꾼이며 사이비이다. 🌀

인창동 친구들의 순교자성월 나기

지난 9월 순교자성월을 맞아 우리 인창동 청소년부 친구들은 학년별로 2주간에 걸쳐 절두산 성지로 성지순례를 다녀왔어요~ 성지의 이름인 ‘절두산’의 유래를 알아보고, 그곳에서 순교하신 순교자들을 위해 기도도 드렸습니다. 함께하는 순례를 통해 오늘날의 우리들에게 순교는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볼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노르망디의 초기 로마네스크 몽생미셸 수도원 성당

강한수 가톨릭 신부 | 민락동 성당 주임, 건축신학연구소

<지난 이야기> 카롤링거 왕조 이후, 교회는 암흑기에 들어섰지만, 클뤼니 수도원과 그레고리오 교황의 개혁 운동으로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를 조금씩 찾게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성당 건축도 다시 활기를 띠게 되었는데 부르고뉴의 제2 클뤼니 수도원 성당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천장이 목조에서 석조로 바뀌면서 성당 전체가 석재로 지어지는 일체성을 갖게 되었고, 평면의 모듈화와 다발기둥 등의 발생으로 초기 남부 로마네스크의 특징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습니다.

프랑스의 초기 로마네스크를 말할 때, 부르고뉴 지방에 버금가는 또 다른 중심지는 노르망디입니다. 노르망디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의 상륙 작전이 펼쳐진 곳으로 유명하지만, 그 땅이 더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건은 천여 년 전 바이킹이라 불리는 노르만인들의 거침없는 상륙 작전(?)이었을 것입니다. 이후 그들은 그곳에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고(911년) 곧 영국에서 노르만왕조(1066~1154년) 시대를 열었습니다. 로마네스크 시기의 노르망디는 그런 영국의 노르만왕조에 속하였는데, 사실 건축적으로는 지리적으로 인접한 북부 프랑스와 독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몽생미셸 수도원 성당

(만조에는 섬이 되는 이 성당은 12세기 이후에 증축되었다)

10세기에 지어진 노르망디의 초기 로마네스크 성당들은 거의 사라졌고, 11세기의 것들이 남아 있지만, 그나마도 고딕 시대에 증축되어 부분적으로만 초기 로마네스크의 요소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르망디의 초기 로마네스크의 모습을 잘 담아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12세기 초에 노르망디의 작은 섬 위에 지어진 몽생미셸 수도원 성당입니다.



네이브월 ~3단 구성

몽생미셸 수도원 성당의 건축적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단순한 리듬의 기둥 체계가 눈에 들어옵니다. 원형의 코어기둥에 대응 기둥이 둘러싼 형태인데, 주기둥과 부기둥의 교체 리듬 없이 한 형태의 기둥이 성당 내부를 일률적으로 지탱합니다. 네이브월은 아케이드층과 갤러리층 그리고 클리어스토리의 3단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케이드층은 한 베이가 하나의 아치로 구성되어 있고, 그 위의 갤러리층은 네 개의 작은 아치를 두 아치씩 묶은 두 개의 블라인드 아치로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밝은 클리어스토리(천창창)가 있어서 아케이드층의 외부에 면한 창과 함께 실내를 밝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어기둥의 네 면에 대응기둥이 덧붙여진 형태의 '기둥'과 아케이드층과 갤러리층의 '벽체'는 그 두께가 상당하여 로마네스크 성당이 갖는 물질적 특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로마네스크 특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수평성입니다. 아케이드층 커다란 아치들의 수평적 연속과 갤러리층 작은 아치들의 같은 방향 연속은, 교체 리듬 없는 단순한 형태의 기둥과 함께 성당이 수평적으로 안정된 느낌을 줍니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천장이 목조 평천장이라는 것인데, 이는 노르망디가 석조 천장인 남부 로마네스크가 아닌 독일 로마네스크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



교구장 동 정

10월	27(주일)	14시	견진성사 - 호평동 성당
	30(수)~31(목)		사제총회 - 한마음수련원
11월	2(토)	14시	성직자묘역 위령미사 - 길음동 성당 올대리묘원



교구 소식

신앙의 눈으로 고전읽기 / 최대한 신부

장소 신앙교육원(의정부교구청 內) 20시~21:30
문의 선교사목국 031-850-1446~7

일정 11/2 괴테의 '파우스트' 2부의 철학사상
회비 1만 원(당일 현장 접수)

나무그늘 사진 공모 알림

소소한 나의 일상을 보내 주세요! '기억하고 싶은 사람과 순간', '이야기가 있는 목주', '나의 기도공간'

채택된 작품은 《나무그늘》에 실어 드리고, 소정의 선물을 보내 드립니다.

문의 031-850-1447, 이메일 samok@uca.or.kr ※ 본당, 이름(세례명), 주소,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8지구 성소후원회 미사

일시 10/30(수) 10시

장소 법원리 성당

2019년 본당 민족화해분과장·분과위원 간담회

일시 11/16(토) 14시~18시

장소 신앙교육원(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61)

문의 031-941-6235~6

신청 ~11/8(금) (참가비: 1인, 5천 원)

교구청 혼인교리(가정사목부 031-850-1448)

일시 11/14(목) 19:30~22:30

장소 교구청 지하 대회의실 / 회비 2만 원(커피를 당)

청년 수지에니어그램 안내12/14(3차) 14시~18시

강사 미리내 천주성삼 수도회 수사

내용 나를 마주하고 존재 그대로 이해, 수용하는 여정

장소 의정부교구청

인원 각 차수별 의정부교구 청년 10명(선착순)

비용 1인 1만 원(저녁식사 제공)

문의 청소년사목국 청년부(031-850-1460)

임진강을 따라 걷는 2019 DMZ 평화의 길

대상 초 6학년 이상 누구나 (총100명, 선착순) 기간 12/20(금)~22(주일), 2박3일 / 장소 파주-연천 구간

주최 천주교의정부교구 민족화해위원회

문의 031-941-2766 www.pu2046.kr / 참가비 9만 원

■ 하느님의 집 후원 현황(9월말 기준)

전월잔액				2,488,486,524원	
9월 후원	사제와 개인	본당 입금	기타(미사예물 외)	교구 부서	합계
	48,210,000원	189,042,569원	119,123,393원	5,100,000원	361,475,962원
비 고	※ 이기헌 주교님 : 15,000,000원 박 카타리나 : 500,000,000원 익명 : 100,000,000원,				
	이정훈 신부 부친상 부의금 : 30,000,000원 김경진 신부 모친상 부의금 : 30,630,000원 익명:10,000,000원				
월말누적잔액				2,849,962,486원	



미사 · 피정 ▶▶

교정사목위원회 후원자 월례미사 안내

일정: 10/30(수), 14시
장소: 교구청 5층 경당
대상: 교정사목에 관심있는 모든 신자
문의: 031-856-0213~5 (전화, 문자 가능)

교구 철야기도회 은사를 통한 치유피정

일시: 매주(금) 21:10~01:20 마두동 성당(11/1)
주제: 제8주 믿음의 은사
강사: 양창우 요셉 신부(성골롬반 외방선교회)
문의: 교구 성령기도회 010-8729-0025

이한택 주교님과 함께하는 첫토신심피정

일시: 11/2(토) 장소: 파티마평화의성당, 10시 기도, 11시 13시 강의, 고해성사, 14시 미사 (점심 제공) /문의: 031-952-6324

첫 토요일 신심 미사

일시: 11/9(토) 09:30~12시, 10시 미사
장소: 호평동 성당(남양주 호평동 556번지)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010-7131-2033
※ 11/2(토)는 위령의 날 미사로 변경.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 영성교육

영적식별력을 기르는 워크숍
일시: 11/4~12/9 매주 월 13:30~16:30
장소: 성심수녀회 본원 강의실(서울 용산)
옴과 함께 걷는 영적여정(대림특강)
일시: 10/28~12/9 매주 월 14시~16:30
장소: 성심수녀회 예수마음배움터(파주)
문의: 031-946-2337/2338

2박3일 무료 치유 피정

일시: 11/1(금) 18시~3일(주일) 15시
장소: 청주교구성령채신봉사회(무료숙식)
문의: 010-4400-1344, 043-213-9103

제주면형의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 순례, 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오름 트레킹 (모든일정은 왕복항공권 포함해서 접수가능)
기간: 11/3~6(추차도), 11/11~13, 11/24~27(추차도), 12/2~4, 12/6~8, 12/14~17(추차도) /연말연시: 12/29~1/1 (일몰, 일출, 한라산 눈꽃산행)
접수: 02-773-1463, 064-756-6009

무료 성경 통독 피정

매월 마지막(화) 10/29, 11시~16시
장소: 마리아니스트센터(고양시 호수로76-17)
문의: 031-926-3090, 010-5267-1380

찾아가는 피정팀 예수수도회 모멘트

첫영성체피정, 초종교, 청년, 교사, 자모, 전신자 피정강의,엄마와딸 피정 등
방법: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는 피정
문의: 010-7236-4627

젊은이 2박3일 마음피정 “하느님을 만나는 길”

일시: 11/15(금) 20시~17(주일) 13시
장소: 예수성심전교수녀회 부산 본원
대상: 40세 이하 미혼 자매 (15명선착순)
참가비: 6만 원
문의: 예수성심전교수녀회 010-8811-6187

의정부 교구 제7지구 성령 하루 피정

일시: 11/4(월) 09:30~16:30
장소: 주엽동 성당 대성전
주제: 유혹과 해방
강사: 마진우 요셉신부(대구대교구 가정복음화국차장) /미사: 이병헌 베드로 신부(7지구 성령 담당. 주엽 주임)
치유: 두현자 올리아나(의정부교구 회장)
문의: 010-9697-9004

가정선교회(성가정 영성 1일 대피정)

일시: 11/6(첫 수요일) 9:30~17시
장소: 명동대성당 /강사: 구요비 주교, 김형석 교수(100세 현역강사, 전 연대교수), 한철호 신부, 윤원진 신부, 이현주 회장
회비: 5천 원(김밥제공), 식수준비
문의: 010-2367-2297, 010-5674-8511
대표전화 02-777-1773

낙태 후 화해피정(착한목자수녀회)

일시: 11/22(금)~24(일) 2박3일 /회비 없음
장소: 성빈센트 환경마을
문의: 010-9318-1366
한국 틴 스타와 함께 합니다.

마리아사제운동 체나콜로 대피정

일시: 10/31(목) 08:30~17시
장소: 수원교구 본당 성요한 성당
강의: 조규만 바실리오 주교(원주교구장)
서상범 디도 신부(서울교구 체나콜로 지도사제) /수원체나콜로: 010-9424-2701, 010-4580-7009

예수회 후원회 금요침묵피정

주제/강사: 관계적 사람 /김정대 신부
일시/장소: 11/1(금) 10시~13시 /예수회센터(서울 마포구 서강대길 19)
문의: 02-3276-7777/무료, 미사봉헌

마리아사제 운동 첫 토요 신심미사와 체나콜로

지금동 성당(동부): 11/23(토) 10시 미사, 11시 기도 /후곡 성당(서부): 11/9(토) 10시 미사, 11시 기도
준비물: 성모님 메시지 합본, 묵주
문의: 체나콜로 봉사회 010-9272-4660

신약성경 통독피정(2박 3일)

날짜: 11/19(화)~21(목)
장소: 인천교구 50주년 기념 영성센터 강의실
지도사제: 손광배 도미니코
피정비: 20만 원(비속박 15만 원)
문의/신청: 영성센터 032-933-1528

예수수도회 청년주말피정

(영신수련 기반으로 한 침묵피정)
일시: 11/9(토) 15시~10(일) 16시
하루피정: 11/3(일) 10시~16시
대상: 미혼 젊은이(33세이하) *선착순
장소: 서울 오류동 수녀원 /010-9746-1585

예수성심전교수도회성모신심미사

일시: 11/2(토) 11시, 예수성심의 어머니성당 전세버스대절-서울역 1,4호선 14번출구(9시출발), 일산동구청주차장앞(9:30출발), 인천주안역복광장(9시출발), 동암역 농협앞(09:05출발), 10/30 까지 예약필수
문의: 02-379-8081, 010-4550-6955



교육 · 모집 ▶▶

금곡성당 사무장 모집

세례를 받은 지 3년 이상, 사무회계업무, PC(엑셀, 워드, 파워포인트 등) 사용가능자
제출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본당 교적 사본, 추천서 또는 본당신자확인서
접수: 11/1(금)까지, 방문, 우편, e-mail dragonkyj@hanmail.net

요양보호사 모집(3교대)

기관: 모현센터노인전문요양원(경기 포천시)
문의: 010-9795-0032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금' 2020년도 지원 대상자 공모

목적: 평신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과 연구 지원 /문의: 02-460-7533 주교회의 평신도기금운영위원회

부문: ①장학금 지원(학부, 석박사 과정)

②학술 연구비 지원(천주교 관련 연구)

신청기간: 10/16~12/16

접수방법: 우편 또는 전자우편 cafl@cbck.kr

※자세한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www.cbck.or.kr '알림마당/소식' 참조

가톨릭대학교 교회음악대학원 성음악아카데미 모집

대상: 연령 무관, 초급부터 최고급과정까지
과목: 오르간, 피아노, 반주과, 성악, 합창지휘, 작곡, CCM, 관악기, 현악기, 바로크악기, 국악, 양상불(남/여 그레고리오 성가, 플루트, 현악, 목관, 기타, 리코더, 성악-남성,여성) 등
일시: 12월, 1월, 2월(3개월 수업)

접수: 11/29(금)까지

문의: 02-393-2213~5

http://www.casm.site 교회음악대학원

전철 1-4호선 서울역, 2-5호선 충정로역

타우영성심리상담소(010-3419-5604)

개인심리상담(불안, 우울, 분노, 스트레스, 관계&성격) 부부및가족상담, 청소년상담, 신앙및영성상담, 수도자심리상담전문가, 상담심리박사 직접상담

장소: 일산 탄현역 5분거리

모현센터의원 간호사 모집

조건: 호스피스병동 3교대(기숙사 제공)

문의: 031-536-8998(경기 포천시)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노인요양원 입소자모집

대상: 장기요양1~5등급(시설급여)을 받으신 분

운영: 마리아의 아들 수도회

문의: 033-458-9422(문피노인요양원)

이주민 치과진료봉사자 모집

대상: 월 1회(4시간) 봉사가 가능한 치위생사

활동: 파주 EXODUS 치과진료봉사

문의: 031-948-8105, 김광한 스테파노

한마음청소년수련원 직원모집

채용분야: 고객지원팀 팀원, 영양조리반 조리사 /담당업무: 사무행정 등(팀원), 단체급식 조리(조리사) /지원마감: 11/8(금)까지
자세한 사항 홈페이지 hanmaum84.com 참고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신입생 모집(2020 전기)

모집전공: 생명윤리학(임상연구윤리학), 생명문화학 /입학전형: 12/2(월) 14시

석사과정/원서접수: 11/4(월)~15(금) 17시

문의: 02-2258-7076(대학원교학팀), 02-2258-7107(친교실)

시스피나음악원 회원모집(02-363-2258)

평화방송 다함께성가를 이호중교수의 성가발성
오전반 화,금 11시 오후반 화,수 19:30 (주1회)

강화꽃동네노인요양원 요양보호사 모집

근무: 주 40시간 /기숙사 가능

문의: 032-930-8500~3

한마음한몸운동본부, 띠앗누리 28기 모집

지구촌과 나를 연결하는 아주 특별한 경험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청년

일시: 20.1/9(목)~19(일) 캄보디아 감봉고 마을

상세내용: www.obos.or.kr 이메일접수
(11/17(일)까지) /문의: 02-727-2292



안내 · 기타 ▶▶

토평동성당 베리파스성가대 제6차 정기발표회

주제: 바로크를 입다(오케스트라와 함께하
는 바로크 성음악)

일시: 11/2(토) 19시 토평동성당 대성전

가톨릭신문 성지순례 02-2281-9070

1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12/3 동부유럽 12일 350만 원

12/8 다낭 마카오 6일 145만 원

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 원

1/27 발칸반도 12일 355만 원

가톨릭여행사 010-5235-3533

1/6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395만 원

1/13 이스라엘 일주 9일 365만 원(대한항공)

1/20 이스라엘 일주 9일 365만 원(대한항공)

1/28 이탈리아 일주 13일 430만 원

라파엘여행사 02-778-8565

이스라엘, 요르단 10일 11/18, 12/3 289만 원

이스라엘 9일 1/19 299만 원

이태리일주 9일 11/7 279만 원, 1/21구정

299만 원 /성모님발현지 13일 10/28 399
만 원, 2/3 389만 원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임양원

국내입양상담 및 입양 전까지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문의: 02-764-4741~3 www.holyfcac.or.kr

성 아우구스티노 수도회 필리핀 세부 성지순례

세부 산토니뇨(아기예수님)축제 Sinulog

일시: 20.1/15~21일(6박7일)

비용: 140만 원, 30명 선착순

문의: 031-834-1262, 010-3222-0768

제19회 가톨릭평화방송 영어캠프

미국: 샌프란시스코부터 실리콘밸리와 LA까지

국내 유일의 샌프란시스코 미국 영어캠프!

사이판: 가톨릭국제학교 정규수업과 현지 투어

필리핀: 안전한 리조트에서 진행되는 1대1 수업

문의: 02-734-0999, www.pbccamp.com

제 55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1/4~2/9(3,5주 선택)

가톨릭계 학교 아일랜드 학생들과 함께

대.일반: 1/4~2/23(5,7주)

DCU 대학교 or ULearn 학원

세계 각국 연수생들과 함께

후원: 원죄없으신마리아 교육선교수녀회

한국 예수회 후원회 성지순례

12/12 베트남 성모성지(다낭) 5일 130만 원

1/09. 이스라엘, 요르단 13일 380만 원

문의: 02-722-8366(크로바여행사)

성 소 모 임	수도회명	일 시	장 소	문 의
	한국외방선교수녀회	11/2(토) 15시	서울 성북구 보문로27길20	010-9353-1773
	성골롬반외방선교회	11/3(주일) 10시	서울 돈암동 본부	010-9937-0901



교회(5) :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루면서 서로서로 지체가 됩니다.” (로마 12,6)

왕태언 요셉 신부 | 신앙교육원 부원장

지난 6월 29일 창립된 우리 의정부교구의 “평신도 사도직협의회”는 신자들의 목소리를 교구장 주교님께 전달하고, 교구의 사목 방향 설정에 의견을 제시함으로써 교회공동체에 주어진 복음 선포의 사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본당공동체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결정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은 ‘주임신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본당사목구의 주임은 주교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목적 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위해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사목해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무의 중대함이 교회 안의 다른 직무들을 배척하는 ‘성직자 중심주의’와 같은 독단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은 분명 옳지 않은 모습입니다.

가톨릭교회의 성직자들과 수도자들과 평신도들은 그 직무에 따라 구분될 뿐, 그 구분이 계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신자공동체와의 교감(交感)과 동의를 바탕으로 사목 방향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고, 신자공동체 역시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충분히 논의하여 한마음으로 복음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실현하는 주체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각각의 직무들이 서로 견제나 경쟁 또는 배척과 불신의 관계가 되는 것은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 간에는 그리스

도 안에서의 재생으로 인하여 품위와 행위에 관하여 진정한 평등이 있고, 이로써 모두가 각자의 고유한 조건과 임무에 따라 그리스도의 몸의 건설에 협력합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872항)

따라서, 가톨릭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지니기 위해 각각의 직무들이 함께 추구해야 할 올바른 방향은 “평신도를 의사 결정에서 제외시키는 지나친 성직주의의 유혹을 언제나 피하면서, 평신도를 성직자처럼 만들거나 성직자들을 세속화하지 않고, 각자의 선물과 역할에서 출발하여, 복음화를 위한 증언에서 모든 이의 상호 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교회의 삶과 사명 안에서 공동합의성 104항)

이처럼,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신 복음 선포의 사명에 초대된 이들이 친교 안에서 같은 기쁨과 같은 감사를 나누며, 주어진 사명을 위해 함께 노력할 때, 세상 모든 이들에게 교회의 참된 가치와 놀라운 신비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 아버지께서 제 안에 계시고 제가 아버지 안에 있듯이,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아버지께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십시오.”(요한 17,22) ☪